

목포대·순천대 ‘통합 국립의대’ 설립 작업 본격 착수

전남도와 공동준비위 출범
정부·국회·의료계 설득 활동
“도민의 생명·건강권 보장”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26일 오전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센터에서 ‘국립목포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목포대·순천대·전남도가 함께 구성한 공식 조직으로,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과 정부·국회·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설득 활동, 외곽 지원 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담당하게 된다. 공동위원장장은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은 순천대 총장이 맡았고, 양 대학 기획처장과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준비위원회는 목포시·순천시 부시장, 지역 의료기관장, 양 대학 동문회 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전문가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꾸려 체계적인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한 현안 회의가 이어졌다. 공동준비위원회 회의에서는 △의대설립 추진 결과보고 △공동위원회 추가 구성 및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송하철 총장은 “전남도민들은 위급한 상황에도 먼 타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구조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지역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민에게도 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라 믿는다”며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함께하려는 우리의 걸음이 반드시 전남 통합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병은 총장은 “두 대학은 통합을 통해 국립의대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공동준비위 출범이 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의료 핵심 주체들 간 연대와 공감을 이끄는 출발점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6일 광산구 선암동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열린 ‘2025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축사에서 “공동준비위가 전남 의대 설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정부에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지속해 설명하고 새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 건의와 협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부지사는 “위원회가 의대 설립을 위해 적극 활동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위원회와 함께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지역 내 의료기본권과 응급의료 대응에 심각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를 대표하는 두 대학은 지난해 11월, 전남의 화합과 미래를 위한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최환준 기자

전남도, 올 친환경농자재 구입 940억 지원

전남도는 26일 “저탄소·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40억원(보조 842억·자부담 98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농자재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19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19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01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원 등이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고시한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농자재와 토양검정비용 등을 지원하며, 유기농인증 농가는 ha당 200만원, 무농약 농가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마을별, 들녘별 단위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157ppm 미만)와 산성토양(pH 6.5 미만)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

료 7만4,000톤을 공급한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유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 43만6,000톤을 공급한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을 단지화해 공동방제 및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 벼의 경우 유기농인증 농가는 ha당 120만원, 무농약 농가는 50만원 지원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지속해 실천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호남권 최대 ‘2025 광주식품대전’ 29일 개막

내달 1일까지 DJ센터 진행
300개사·450개 부스 운영

광주시가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광주식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로, 기업 간 거래(B2B)와 소비자 대상 거래(B2C)를 아우르는 산업전시회다. ‘지역과 함께하는 광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주제로 농수산식품, 식품기기, 가공·냉동식품, 카페·베이커리 등 300여개 기업

이 450여개 부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올해는 ‘광주주류관광페스타’, ‘Tea&Cafe Show (티앤카페쇼)’와 함께 열려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식품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상담회(바이어 24개사), 국내 유통 상담회(MD 25개사),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 투자 상담회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벤처 캐피탈 투자 상담회’를 통해 식품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특별관도 운영한다. △광주·대구 달빛동맹관(18개사) △향토음식특별관(6개사)

△대한민국식애인포럼 연계 특별관(5개사) △지자체관(전남·제주단체관 16개사) △국제관(19개사)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해외시장 연계를 강화된다.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K-FOOD 창업요리대전 △광주 대표 음식요리 경연대회 △제과제빵 경진대회 △광장맥주 축제 및 플리마켓 등도 선보인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박람회는 산업 비즈니스뿐 아니라 광주의 맛과 멋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축제”라며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교통약자 투표지원’ 차량 무료 운행

사전·본투표일 예약·즉시콜

광주시는 2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오는 29·30일 사전투표일과 6월 3일 본투표일에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투표 지원 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 지원 차량 운행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은 이용자의 거주지와 투표소를 오가며 차량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활동 보조인이 동승해 불편함 없이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운행 요금은 전액 무료다. 신청대상은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이다. 예약 신청은 광주시교통약자지원센터(1668-2222)에서 받는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30일 오후 5시까지, 본투표 참여자는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예약접수할 수 있다. 예약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전투표 및 본투표 당일에도 즉시콜 접수도 가능하다. 투표 지원 차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현 기자

‘광주 100년 기록’ 시청각자료실 전면 개편

1900년대 광주읍성·군청 등
2만여점 디지털 아카이브

광주시는 광주의 100년 역사와 도시발전 과정이 담긴 시청각자료실을 전면 개편하고 26일 재오픈했다. 시청각자료실은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 2만여점의 시청각자료를 디지털로 아카이브한 곳으로 이곳에서는 1900년대 광주읍성과 군청, 태봉산 등 사라진 옛 광주의 모습부터 현대의 변화된 도시 풍경까지 광주의 시대별 기록을 보

다 체계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시청사진 열람, 조건별 검색, 온라인 자료 요청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또,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료는 사료 컬렉션, 주제별 사료, 사료 콘텐츠로 구성됐다. 사료 컬렉션은 기록물이 보존 형태에 따라 분류돼 있다. 사진 2450점, 슬라이드 3300점, 필름 3134점 등이 포함됐다. 주제별 사료는 주요 시청 현장 사진 8556점을 행정, 문화·관광, 체육, 교통·건설 등 8개

분야로 분류해 제공한다. 사료 콘텐츠는 광주의 변천사, 사라진 명소, 사진작가의 작품 등 다양한 사진 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시는 이번 개편을 기념해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시청각자료실 누리집과 광주시 누리집에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박광서 시 대변인은 “시청각자료실은 광주의 정체성과 발자취를 생생히 보여주는 디지털 기록창고”라며 “이번 전면 개편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광주의 과거와 현재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한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육아는 한마음 아이는 큰희망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자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0 / 010-2603-1050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자하인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